

성균국회 제124회 정기대공연 '분장실' 인수인계서

작성자: 무대감독 61기 정준원

2023 03 09

1. 개요

본 인수인계서는 제124회 정기대공연 '분장실'에서 무대감독의 위치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차후 정기대공연 혹은 신입생 워크샵 공연 준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무대감독' 직위에 대해

무대감독은 기획팀과 연출진+캐스트를 제외한 전 스태프의 일을 총괄합니다. 무대감독의 위치는 연출이 해당 공연에서 가진 위치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무대감독은 연출만큼의 작품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연출이 원하는 작품의 방향이 무엇인지, 무대에서 특히 표현하고 싶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대감독은 작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해, 연출이 직접 하나하나 살피기 힘든 부분(특히 무대 설치 과정)을 '찾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무대감독의 일은 안타깝게도, 직접 '찾아서'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이 각 팀 준비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따라 무대감독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3. 공연 연습 기간 전

이번 공연의 경우, 무대감독을 하겠다는 의사를 연출에게 공연 이전에 알렸습니다. 공연진 명단도 완성되기 전에 대본을 받아 미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각자의 포지션이 확정되면, 연출과 기획팀장, 무대감독은 이번에 올리게 될 공연에 대한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다소 부족했고, 무대감독인 저조차도 연출과 사전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배우들의 동선은 캐스트들이 장면 연습을 들어가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만들고 시작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장면 연습과 런스루 연습을 지나고, 무대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야 비로소 무대 스케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래도 연습 시작 전 대본 분석을 조금 더 해서 기초 가이드라인을 회의 때 제공했다면 더 원활한 회의가 됐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공연 연습 기간 직전에 MT를 진행합니다. 저는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했다라면 각 팀에 있는 팀원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 스태프 모두를 알고 있어야 일을 총괄하기 편해지니, 웬만하면 MT나 단체 시파티에 참여하는데 더해 스태프끼리의 단합대회도 주관하기를 권장합니다.

4. 공연 연습 중

캐스트와 연출이 연습에 들어가게 되면, 스태프도 정기 회의 날짜를 정하면서 공연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때 무대감독은 스태프 전체회의를 연출 대신 주관해야하며, 각 주차 별로 되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 준비기간이 다른 공연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이었으므로, 준비해간 일정을 1-2주 정도 더 당겨서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일주일에 2번 진행했습니다. 월요일에 전체 스태프회의에서 직전주의 팀 상황 파악과 금주에 해야 할 업무를 확정합니다. 이 때 서로 합의했던 것이나 하기로 했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계속 인식하기 위해 금요일에 키스텝 회의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전체 회의나 키스텝 회의에 연출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으나, 연출이 생각한 무대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있어 이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은 전체적으로 스태프 회의 참여도가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키스텝 회의가 있었기에 그 중요도가 조금 덜해졌지만, 그래도 스태프 회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하나의 공연을 함께 도와 올린다는 생각을 스태프 모두가 가지는 것이 해당 공연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스태프들에게 앞으로의 일정을 공지하고, 각 팀이 몇 주차에 어떤 일을 해두어야 하는지 일러둡니다. 이 때 스태프도 대본 분석이 필요함을 인지시켜야합니다. 캐스트 수준의 그것은 아니더라도, 회의 진행 시 “그게 뭐야?”라는 말이 나오면 곤란하기에 꼭 일러두어야 합니다.

1월 4주차 - 일정 확정, 극장 1차 답사, 조명/무대 제반 조사

* 원래 스태프워크샵이나 단합대회,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첫 주에 따로 갖는 것이 좋는데, 공연진 전체 MT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첫 회의가 있었던 주간에 바로 극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월 1주차 - 각 팀 스터디(필요시), 대본 분석, 각 팀 기초 컨셉 회의

* 팀장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63기 신입 기수로 이루어진 영향으로, 각 팀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각 팀에서 선배님들에게 각자 요청해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월 2주차 - 무대/조명/음향 디자인 (가)확정, 의소본 컨셉 확정

* 모든 팀 회의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체 회의와 키스텝 회의에서 피드백하는 것으로 디자인 과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디자인 과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술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1주일정도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무대감독이 도와준다면 그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공연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도 있었기에, 다음 공연에는 디자인 과정을 처음부터 2주 정도로 여유있게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공연 연습 시작 2주 정도 뒤부터 보통 장면 연습에 들어갑니다. 이즈음부터 시간이 날 때 마다 동아리 방에 가 연습을 참관합니다. 연습 참관은 무대감독이 아닌 일반 스태프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와서 직접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팀 스태프들에게 회의때마다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2월 3주차 - 큐시트 작성 완료(시연회 전까지), 무대 설치 준비 완료, 의소분 픽스 [시연회]

* 큐시트 작성 시작을 2월 2주차로 잡고 천천히 진행하려 했으나, 큐시트를 작성하기 전 과 정하기 전 과정(음향 셀렉, 조명 디자인 등)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우선 시연회까지 완성은 됐지만, 시연회 이후 극장에서 런쓰루에 뒷깍이를 하면서 계속 큐시트를 수정했습니다. 사실 바 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최대한 장면연습에 각 스태프들이 많이 참관하면서 큐시트를 확정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 시연회는 (공연마다 다르지만) 기술팀 큐를 포함한 드레스 리허설로 진행합니다. 오퍼 큐가 맞는지, 무대 동선은 기존과 달라진 게 있는지, 무대 수정사항이 있을지 등을 시연회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5. 공연 직전 무대 설치

무대 설치 주간이 무대감독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시간입니다. 이 때 앞서 말했던 일 ‘찾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조금 더 많이 보고,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무대 설치 주간에 무대/음향/조명/의소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힘들더라도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편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2월 4주차 - [무대 설치 주간]

* 이번 공연은 무대 대관일자가 굉장히 길기도 했고, 무대 디자인도 그 전 공연보다 많이 간소했기에(벽 없음, 페인트칠 없음) 조금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고 무대에서의 런쓰루 연습 기간을 많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이슈가 계속해서 터졌고(인원 부족, 용달 부재, 무대 디자인 소통 오류, 조명 에어리어 확정 지연 등) 결국 무대 완성은 공연 전날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설치 기간은 예상 소요시간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여유롭게 잡기 바랍니다. 또한, 무대 설치 인원이 충분한지 무대 설치 주간 전에 조사하여 준비해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무대 설치 주간에 선뜻 나와 도와주신 선배님들, 동기님들, 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명 에어리어 조정이 있을 때, 보통 조명팀장의 주도로 흘러가겠지만 무대감독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문제가 어느 부분에 있는 것 같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 원래 무대 설치 순서는, [~~바닥(해당 없음)~~] → 벽 위치 확인하며 공간감 확인(커튼으로 대체) → ~~벽 마스크~~ 후 벽(커튼) 세우기 → 대도구 세워보고 마스크 → “조명 에어리어” 조정 → 동선 확인 → 대도구 세우기 → 야광 테이프 붙이기] 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도구를 먼저 세워 버리는데에 집중하고 조명 에어리어 조정을 그 다음에 진행하는 실수를 저질러 무대 설치가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계획 상 커튼을 공연 후반부에 양쪽으로 치는 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 연출과 논의 후 백지화했습니다. 동시에 포그머신 사용 또한 백지화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무대 설치 전에 미리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놓쳤던 것이 아쉽습니다. 무대 디자인과 설계를 확정할 때 무대 전환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 무대 설치의 아무리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도 촉박합니다. 그렇기에 무대 설치 전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 무대가 완성된 뒤 런스루 연습을 보면서, 캐스트의 연기보다는 공연 전체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각 기술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느꼈더라도 연출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무대감독은 그런 요소를 하나하나 발견해 고쳐야 합니다.

6. 공연, 공연 마무리

* 공연이 시작되면, 관람할 수 있는 날짜의 공연은 계속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 한 회 한 회가 끝날 때마다 피드백해야 할 것이 보통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았더라도, 연출이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대 철거도 무대감독이 지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출과 캐스트는 먼저 뒷풀이 장소로 이동하고, 그 외 무대에 상주하는 전 스태프가 철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의소분은 소품부터 관리하고, 무대팀 중심으로 대도구/벽(커튼) 철거를 진행합니다. 보통 마지막 공연은 대관 마지막 날 늦은 저녁인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또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부 극장인 경우) 용달이 오면 자재를 싣고 무대팀을 제외한 스태프는 퇴근합니다. 무대팀이 동아리 방에 따라가 마저 옮긴 뒤 철거를 마무리합니다. 교내 극장에서 올리게 되면 다같이 자재를 옮기고 함께 뒷풀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것은 '연출과 캐스트는 즉시 퇴근한다.'

7. 마무리하며

무대감독은 연출진과 스태프 모두에게 힘이 되어야하는 사람입니다. 올리게 될 공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더 볼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준비하는 공연이 모두 성공적으로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